

방과후학교 1, 2, 3

140 여명의 어린이들은 정규학교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방과후 학교 1, 2, 3 에서는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세금 오피스에서

“쿠티타로 인해 지역 담당행정 부서가 재정비가 되고 주변 지역의 업체들 대상으로 세금 면담 날짜를 통보받아 다녀왔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1년 18만 정도로 적용하는 세금으로 3년 (19/20/21)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희 MOT 선교 센터의 부설, 카페, 식당, 미용실에 대한 세금은 세금 부서의 책임자분이 우리 MOT 에서 지역의 여러 마을에 방과후 학교를 통해 지역을 돕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시며 3곳을 통합하여 세금을 가장 낮게 책정하는 연 10만으로 하여 3년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심는 장학생 자매결연

이번에 개척을 하였기에 몇 가정이 모여 예배 드리는 개척 상황이지만 예배 드리며 감사하게 드러진 헌금으로 미얀마 선교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연결하여 지원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어 이번에 군부의 공격으로 피난민이 된 남편없이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9살 “난쉐웨” 어린이를 1년간 돕기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위로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누리교회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년에 10개월이 건기인 미얀마 계속되는 정전사태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군부집권 체제 생활속 기초 사용부분의 전기 확보를 위해 태양광 전기 충전과 기존 전기 충전 겸용인 전기 충전기 구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광OO & 엄OO 선교사

기도에 힘으로

처음해보는 간병이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없다 했었고 마지막 면회를 두번이나 하면서 장례까지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던터라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난 2월 22일 하나님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주셨고 중환자실 3개월 2주일만에 의식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왔는데 하루밤만 저와 같이 지냈는데 다음날부터 의식이 돌아왔고 현재는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인공호흡기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으로 말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찬송듣습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입니다. 일어날 확율이 의학적으로 없다했는데 조만간 인공호흡기만 떼면 집으로 퇴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규정이 3개월인데 현재 4개월이 지나서 다른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음주에 폐에 삽입했던 관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폐기능이 날로 좋아질수 있도록 또 코졸로 음식 섭취하던것을 다음주에 배로 관을 위에 삽입하여 음식 섭취하게 됩니다. 시술 잘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빠른 시일내로 뽑고 입으로 호흡하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음식 섭취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김송호 & 김에스터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척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 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속히 완치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이혜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항암치료중인 아내와 제가 양성판정을 어제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는 가벼운 감기반응 뿐이지만 강선교사는 좀 힘들어하네요.
5.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우울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7. 김에스터/김송호 목사님: 폐가 빨리 회복되고 자가 호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유의경선교사 - 3월 25일새벽에 폐에서 피가 또 나와서 세인트 주드 병원 Emergency로 들어가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깨끗하게 치료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3월 27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몰도바에서 전하는 소식과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2022년 몰도바에서 전하는 첫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현지인 사역을 하는 팀에 합류하여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북쪽에 있는 ‘Soroca’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완료한 차를 이용하여 차량운행으로 돕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교제하거나 마을 주민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몰도바 소식>

몰도바는 지난 2월 말 러시아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전부터 많은 사람이 전쟁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며 돕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단체와 교회들이 협력하여 몰도바 국경을 넘어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과 담요 등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이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착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저는 ‘Soroca’시에 있는 현지 사역 팀에 합류하여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지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아이들과 교회학교를 열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게임을 통해 친밀함과 유대관계를 만들고 있으며, 간식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하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겨울의 몰도바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서 난방은 겨울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싼 가스비로 인해 보일러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골 지역은 벽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저희 팀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겨울용 땀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진행이 되는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마다 사용할 양을 신청하였고 저희는 땀감을 구매하여 가정마다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때로는 먹거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옷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갑자기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몰도바에서 진행한 PCR 검사에서 양성인 나왔기 때문에, 예약한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9)’

그러나 다음 날 팀에 있던 코로나 검사기를 사용하여 검사해보니 음성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다시 음성인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며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자 PCR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아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할 때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고 입국 후 자가 격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착 후에 선교관에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진 다음 날 부모님 댁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힘드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담담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도 담담하게 어머니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누님의 가족들과 함께 아버님의 유해가 안장되어있는 봉안시설에 방문하여 아버지께 못한 아들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14:27)’ 한국에서 약 1개월에서 2개월 내를 머물면서 가족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족들을 돕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몰도바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몰도바는 현재 4월 25일까지 영공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기도제목>

1.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2.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와 안정을 위하여.
3. 주님이 예비해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신학(M.div) 공부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5. 언어(영어, 루마니아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은 학생들이 그동안 대학교안에서 전도하며 연락을 하던 청년들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갖었습니다.
얼마나 신나하며 즐거워 하던지요. 감사하게도 그중 8명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마라카이 도시에 방문하여 신학교 목사님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기독교 세계관 학교 온라인코스를 졸업하신 분들을 모시고 첫 도시 대면모임을 갖었습니다.

베네수엘리 선교센터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곳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비를 하기위해 스칸을 하고, 냉장고와 냉동고를 정비하고 오래되어 빛깔이 바랜 식탁과 의자들은 바랜 니스를 벗겨내고 사포질을 하여 색을 다시 입히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곳에서 빈민가 어린이 급식사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300-390명 어린이 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2월 전국에서 모였던 대학생들이 수련회 이후 학교에서 계속 전도하며 제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로드리게 대학교에서는 2일간 3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네마 포럼을 갖었습니다.
다큐를 보여주고 (딜레마 소셜미디어) 엘리야 선교사가 요약과 성경적 풀이, 질의문답 등을 갖었습니다.

아마존 부흥선교회도 2월말부터 팬데믹 이후 다시 연합찬양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 선교사가 팬데믹때 카라카스로 이사온 후에 사역은 말빈부부와 마리아 로페스 부부, 마르코 부부가 함께 앞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 베네주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남아공에서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담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남아공에도 정치, 문화, 사회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팽배해 가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들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교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 여전히 열심히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원주민 대상의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항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보게 되어 저희도 행복한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해야 하는 저희 역시 늘 가난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음에도 시시 때때로 도우시는 은혜로 만남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민 교회와 프리 스쿨을 꾸준히 섬기고 있고 구제 사역은 예전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현재까지 비정기적인 방법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진실로 감사할 뿐입니다. 신학교와 신대원은 코로나로 인해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이 시작되면 제가 전체 강의 진행을 주로 감당한다 해도 저와 협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들이 필요하게 되므로 후원이 전무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고민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차량 구입 후원

저희 부부는 구리시에 있는 교회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Seed Money”를 보내 주셔서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목표하는 후원금의 절반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차 구입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없으니 그냥 발이 묶여 있는 모습으로 살아 갑니다. 특히 올해는 매일 비가 오다시피 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쿠터로 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스쿠터는 나 혼자만 이용할 있기에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자동차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만 갑니다. 이곳은 저희와 같은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조차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원활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곳을 와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곳의 교통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위험해서 이곳의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설마, 그 정도일까...”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살인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는 일도 생기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곳은 승객들이 자리를 모두 앉아야 떠나는 시스템이라 이곳의 교통편으로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단 몇 시간의 방문 시간이지만 가까운 이웃 마을을 가더라도 하루, 이틀을 묵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이 이곳 남아공을 방문하셨지만 그럴 때에도 저희 선교지에는 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조금 더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남아공 이은원 & 최정미 선교사